

# 호스피스 증례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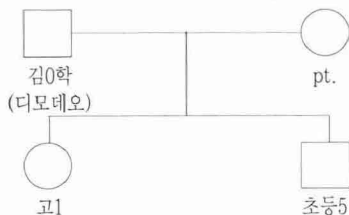
-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가병원 호스피스 팀 -

<< 사회사업가 >>

## 환자의 경제 및 일반적 상황

등록번호 712128  
 성명 임0옥  
 주민등록번호 650320-2458511  
 성별 여  
 진료과 내과  
 주치의 진00  
 피면접자 김0학(남편)  
 의뢰자 가정동 신자  
 진단명 유방암  
 현주소 인천시 서구 00동 104-62  
 00빌라 0동 301호  
 전화번호 500-3000  
 래원일 99.12.23  
 결혼상태 결혼  
 직업 무  
 종교 천주교(카타리나)  
 주거형태 전세  
 학력 고졸  
 경제상태 하  
 주수입원 및 월수입 120만원  
 (수금이 잘 될 경우)  
 의료보장 보험

## ■ 가족 구성도



## ■ 주요 관심 사항

(발달력, 병력, 의뢰과정, 주문제점, 기타)

client 임0옥은 16년전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김0학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둔 95년 6월 유방암 3기말 진단을 받고 아주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후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99년 재발되어 가정동 본당 신자 소개로 본원에 오게 됐으며 항암치료 6차 받았음. 97년 자궁 물혹 수술을 받았음. 남편이 회사 퇴직후 검영계(철근제품 찍는일)을 하다가 두 번 실패 후 노동 일을 2년 정도 하다가 97년부터 생수 보급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수급하지 못한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되며 수급이 잘 될 경우 월 120만원의 수입이됨.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도 경매에 붙어 있는 상태여서 전세금도 폐일 형편에 있음. 항암치료를 받을때에 조카와 성당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았음.

## ■ 문제사정

1. 경제적문제 : 남편이 생수 보급소 운영을 하고 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client가 hospice병동에서 care받기는 어려운 형편임.
2. 의료적문제 : client는 유방암 말기 환자로써 더 이상 쾌유를 위한 치료는 어렵고 통증조절을 하면서 hospice care를 받아야 할 환자임.
3. 심리, 사회적문제 : client는 말기암 환자로서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리적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간병인문제: hospice care를 받기 위해서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함

### ■ 소견(목표, 계획, 평가)

1. 경제적측면 : client 남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hospice care받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hospice 후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기로 함.
2. 심리적측면 : client가 말기암 환자로서 가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울 줄이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를 할 계획임
3. 간병인문제 : 간병은 낮시간은 가정동 성당 레지오 단원과 hospice 봉사자가 교대로 돌보고 밤에는 남편이 돌보기로 함

### ■ 치료 개입과정

2000.4.14

금.오후2시

client가 침대에 편안한 상태로 앉아 있었고 자원봉사자 루시아 자매님이 돌보고 있었음. 창 밖을 바라보면서 날씨가 좋아지니 마음으로 답답한 느낌이 들어 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함.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밥을 데우는 동안 식사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것 같다며 헛구역질을 함.

4.18 화

오후3시30분

client는 아주 편안해 보였음. 자원봉사자는 엘리사벳 자매님이 있었음. 오후 4시경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음.(식사는 했는지 안부 물음) 남편이 자상한 것 같다고 사회사업가가 말하니 남편은 마음은 자상한 듯 하나 행동이 따르지 않아 섭섭한

점이 있는 듯이 말함.

아들이 딸보다 마음이 섬세한 편이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서 식사 준비도 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함. 딸은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므로 집안 일도 잘 안하고 식사도 잘 챙기지 않는다고 하며 아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듯 함. 원목실 수녀님이 빌려준 책(마더 데레사)을 며칠 전에 좀 읽었더니 많이 피곤하다고 함.

사회사업가가 밖의 풍경, 나뭇잎 빛깔이 아름다워서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니 client도 동조함.

건강이 호전되었을 때 남편과 아들, 딸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가족들에게 남기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니 고개를 끄덕임.

자원봉사자 루시아 자매님이 부활 달걀을 준비해 오면 같이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며 기쁜 표정을 지어보임.

4.21 금

오후3시

client가 많이 피곤해 보였으며 졸음이 온다며 침대에 기대어 계속 눈을 감고 있었음.

부활 계란 바구니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부활 바구니를 만드느라고 피곤했겠다고 말하니 client는 말 할 기운도 없는 듯 얹은 미소만 띄울 뿐 말이 없었고 봉사자(엄 카타리나)가 밤 10시까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고 대신 답변함.

의사

**주소** 3일간 지속된 구토와 기침  
**증후** 체중 감소와 식욕부진 두통 외 다른 증후 없었음.

**현 병력** 상기 35세 여자 환자는 95년 5월 26일 좌측 유방암 1기로 아주대 병원에서 진 단후 변형유방절제술 및 액와 림프절 광청술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6차례 CAF 복합항암요법후 완전 반응언어 외래 추적 검사만 하고 있던중 98년 10월 우측 흉통과 우측 상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상 간전이, 폐전이, 골전이가 발견되어 유방암 재발판정후 본원으로 전원 하였습니다. 99년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 Taxol과 carboplatin 복합항암요법 시행 하였으나 진행하였습니다.

1999년 6월 여의도 성모병원 으로 전원하여 고용량 항암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하여 권유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거부하고 지내다 1999년 12월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등 증상 보여 입원후 우측 흉막액 천자와 통증 조절후 증상 호전하여 10일만에퇴원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호흡곤란, 구토 등이 지속되어 이의 조절을 위하여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과거력** 상기 병력 외에 특이 사항 없음

**가족력** 특이 사항 없음

**이학적 소견** 내원시 혈압은 120/80 mmHg, 맥박수 90회/분, 호흡수 30회/분, 체온 36.4℃이었고 흉부청진상 우측 폐하부에서에서 호흡음이 감소된 소견이 청취되었고 우측 경부 림프절 종대가 있었으며 그 외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검사 소견** 입원당시 말초혈액 검사상 백혈구

9200/mm<sup>3</sup>, 혈색소 10.1 g/dl, 헤마토크리트 30.4 g/dl , 혈소판 331,000/mm<sup>3</sup>, 적혈구 침강속도 54mm/hr로 증가 되었고 빈혈 소견 보였다. 생화학 검사상 LDH 874 U/L로 증가된 소견외에 특이 소견 없었고, 소변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다.

**심전도 소견** 좌심실 비대 소견

**흉부 X-선 검사** 우측 흉막 삼출액

**치료 및 경과**

통증 조절 목적으로 morphine 60mg을 복용하기 시작 했으며 acetaminophen 3T을 처방하였고 내원 2일째 흉막 삼출액을 1.5L 제거하였다. 또한 산소를 3l/min으로 주었다. 통증 조절은 잘되는 편이었고 호흡곤란 세도 많이 완화되었다.

pleural tap은 원할 때 하기로 하고 hospice care를 계속 하기로 하였다. 내원 12병일 때 골전이로 인한 통증 조절 목적으로 panidronate를 정맥 주사하였으며 1개월에 한번씩 정맥 주사 하기로 하였다. 다시 호흡 곤란 호소하여 흉부 X-선 검사 시행하였고 여기서 다시 흉부 삼출액의 양이 증가하여 pleural tap 1.5L시행하였고 이후 증상은 많이 완화 되었다. 내원 24병일 쯤 다시 pleural tap 1.5L 시행하였고 solucortep 100mg 정맥 주사 하였다.

내원 30일째 통증이 심해지고 신경통증이 발생하여 mexiletin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mexiletin을 복용후 신경통증이 조절되기 시작하였다. 내원 40일째 구토가 심해지고 흉부 통증이 심해지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여 morphine을 30mg 정맥 주사 하기 시작 하였으며 metoclopramide를 하루 3차례 정맥주사 하기 시작하였다. pleural tap은 1주 에 한 차례정도 반복 하였다. 내원 42병일째 다시 pamidronate를 정맥

주사 하였고, 내원 50일째 morphine p.r.n 횟수가 많아져 morphine을 50mg으로 증량후 다시 통증은 조절 되었다. 내원 60일째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받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사회사업가 면담후 본원에서 시행하는 무료병동인 사랑의 병실로 이실 하였으며 통증조절과 흉막삼출액 조절은 잘 지속되었다.

투약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내원 72일째 다시 pamidronate를 정맥주사 하였다. 내원 79일째 통증이 심해져서 morphine을 80mg 정맥투여로 증량 하였으나 조절되지 않아 내원 80일째 다시 160mg으로 증량 하였다. 내원 91일째 다시 통증이 심해져 morphine을 200mg으로 증량하여 정맥 투여 하였다. 내원 102일째 다시 통증이 심해져 morphine을 250mg으로 증량 하였으며 내원 103일째 호흡곤란 심해지며 청색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저하하기 시작 하였으며 오후 9시 30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 하였다.



크 사 마 사

몸 달아  
기다려다  
피어 오른 숨결

오시러라 믿었더니  
오시러라 믿었더니

눈물로 무늬진  
연분홍 웃고름



남겨 주신 노래는  
아직도  
많은 이슬

뜨거운 그 말뚝  
재가 되겐 할 수 없어

굽게 머리 빚고  
고개 숙이면

바람 부는  
가을 길  
노을이 탄다



<< 간호사 >>

I. 환자소개

입원동기와 증상

1995년 5월 좌측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Taxol Carboplastin을 6회 시행 후 간헐적인 통원 치료를 하였다. 1998년 10월 Bone Scan 상 4th, 6th rib 및 폐, 간에 전이되어 99년 1월 항암요법을 재차 시행 받았으나 치료 불가능하여 6월에 퇴원, 가정치료 중 식욕부진, 두통, 구토 등을 주요증상으로 입원하였다.

과거력 없음

가족력 없음

사회 경제적 배경

가족은 남편과 슬하에 딸(고1), 아들(초등5년)을 두고 있으며 남편은 노동자로서 발병 전에는 부부가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발병 후 수입의 감소와 치료비의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학력은 고졸이고 종교는 천주교이다. 대상자는 자신의 질병 및 현 상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Hospice care 에 동의한 상태로 사후 시신기증을 원하고 있다.

신체사정

통증이 심하고 늑막 삼출액으로 인해 호흡곤란과 기침이 심하며 오심, 구토로 인한 식욕부진 및 영양결핍 상태를 보이고 있다. 뼈 전이로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기동장애를 보인다.

II. 간호과정

간호진단

1. 동통과 관련된 안위변화
2. 부동과 관련된 피부통합성 장애
3. 늑막삼출액과 관련된 호흡곤란
4.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

#1. 동통과 관련된 안위변화

1. 주관적 자료

“등이 너무 아프고 숨이 차요”  
 “왼쪽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요”  
 “숨 쉴 때 가슴이 걸려요”  
 “아파서 깊이 잠을 잘 수 없어요”

2. 객관적 자료

움직일 때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린다.  
 왼쪽 다리에 부종이 심하다. 폐, 간, 뼈에 전이된 상태이다. chest X-ray 소견 상 늑막 삼출액이 차 있다.

3. 간호목표

동통이 완화될 것이다.

4. 간호수행

- ① 스스로 편안한 체위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 ② 통증부위를 마사지 해 주었다.
- ③ 더운물 주머니를 대어 주었다.
- ④ 산소공급을 해 주었다(5 l /min)
- ⑤ 관심의 전환을 위해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또는 기도 테잎을 틀어 주거나 성서를 읽어 주었다.
- ⑥ 적당량의 진통제(N-MPA)를 수액과 혼합하여 24시간 유지하도록 하였다.
- ⑦ 심한 호흡곤란시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제제(H-SMV)를 투여 하였다.

5. 간호평가

통증이 감소하였다.  
 많이 편안해 졌다고 말하였다.

#2. 부동과 관련된 피부통합성 장애

1. 주관적 자료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요”  
 “숨이 차서 움직이기 싫어요”  
 “움직이면 더 아파요”

2. 객관적 자료

체위변경시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옮긴다.

부종이 심한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

요추부위에 1cm X 1cm 욕창이 세 곳 발생하였다. 호흡곤란으로 계속 앉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다.

3. 간호목표

더 이상의 욕창 발생이 없을 것이다.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 간호수행

- ①체위변경을 돕고 격려하였다.
- ②욕창발생이 예상되는 부위를 맞사지 해 주었다.
- ③건조하고 깨끗한 흡이불과 환의를 사용하였다.
- ④공기침대와 air ring을 대어 주었다.
- ⑤듀오템을 붙여 주었다.

5. 간호평가

더 이상 욕창의 발생이 없었다.

2차 감염증상이 없었다.

#3. 늑막 삼출액과 관련된 호흡곤란

1. 주관적 자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등이 걸려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2. 객관적 자료

빠르고 얇은 호흡을 한다.(32/min)

chest X-ray 소견상 늑막삼출액이 찬 상태이다.

3. 간호목표

호흡곤란이 감소 될 것이다.

4. 간호수행

- ①활력징후를 관찰하였다.
- ②호흡하기에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해 주었다.
- ③반좌위를 취해 주었다.
- ④산소공급을 해주었다.(5 l/min)
- ⑤필요시 처방에 따라H-SMV를 정맥투여 하였다.

5. 간호평가

호흡곤란이 감소하였다.(24/min)

숨쉬기가 편안해졌다고 말하였다.

#4.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

1. 주관적 자료

고1짜리 딸아이가 혼자 도시락 싸갈 생각을 하면..

“엄마노릇을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아들이 스무살 될 때까지만 산다면 좋겠어요”

“내가 죽은 후 가족들이 살아갈 일이 걱정이예요.”

2. 객관적 자료

가족들 이야기를 할 때 침울한 표정이다.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3. 간호목표

- ①환자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울 것이다.
- ②환자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배려할 것이다.
- ③가족들에 대한 염려를 감소시킬 것이다.
- ④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을 모색할 것이다.

4. 간호수행

- ①가족들과 잦은 대화를 통해 환자의 마음을 털어놓게 하고 장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어 신뢰감이 증진되도록 도와주었다.
- ②자녀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당부하고 싶은 말을 편지글로 남기게 하였다.
- ③비디오촬영을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남기도록 하였다.
- ④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호스피스 후원회와 본 병원 사회사업과를 연결하였다.
- ⑤가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그룹이 시간표를 계획하여 환자를 간병하도록 하였다.
- ⑥기도를 통해 가족들의 미래를 하느님께 위탁하도록 격려하였다.

5. 간호평가

가족에 대한 염려가 감소하였다.

경제적 부담감이 감소하였다.

## 원 목 자

### 1. 환자에 대한 묘사

#### 개요

35세의 기혼 여성. 병명은 유방암

158cm 정도의 키에 얼굴은 가름하고 피부는 흰 편이다. 커트머리에 앞머리는 늘 핀으로 고정시켰다.

가족으로는 지금의 남편과 고1짜리 딸과 초등학교 5학년의 아들이 있다.

육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은 IMF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생수 보급소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는 어렵게 지내는 형편이다.

환자의 성격은 아무에게나 인사 잘하고 늘 웃음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순둥이 같은 인상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성향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 환자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내력

불임성이 있어서 본당에서나 병실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사랑의 병동'으로 옮기면서는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을 받는 등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가족이 들어 설자리는 변변하지 못했다. 주말에만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딸아이는 엄마와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으며 반항적인 기질의 얼굴과 차림새를 하고 와서는 가끔 엄마의 속을 썩였다. 엄마는 가끔 전화통화로 딸을 어르기도 꾸짖기도 하였고 아들은 어리지만 누나보다 의젓했다. 자상하게 엄마를 배려하는 모습은 기특하였고 남편은 하루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환자를 돌봤다. 환자의 큰 걱정은 아이들 이었고 딸아이는 늘 근심 거리였다. 그러던 중 어버이날에 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앞으로 딸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다는 애절한 딸의 반성문을 읽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환자의 형제들도 위로 다섯이나 있었

지만 와보는 형제는 셋째와 맏이었다. 또한 시집식구 쪽은 거의 방문이 없었다. 결국 환자를 지지해 준 쪽은 가족, 친지보다는 외부사람들이었다. 가족과 외부의 균형 잡힌 돌봄을 받지는 못했지만 환자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과분한 모든 배려에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 영적인 측면에 대한 내력

신앙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기도생활에서 내적인 힘과 위로를 많이 받았다. 살고 싶은 성향을 자주보이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할 때마다 한번도 남을 위한 봉사를 못하고 살았기에 자신도 건강을 되찾아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으면 하는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임종 직전까지 거의 날마다 신부님의 방문으로 성체를 모시고 안수 기도를 받았으며 여기에서 큰 위안을 받았고 봉사자와 원목자와의 영적 교류가 평온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다.

#### 심리적 측면에 대한 내력

편안하게 지내다가 특히 임종하기 한달 전부터는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심한 불안을 느낄 때는 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불안을 한차례 겪고 나면 몸 상태도 많이 나빠진다는 느낌과 아울러 환자 스스로 죽음은 이런 경로를 통해 서서히 오는 것임을 피부로 느끼다고 하며 우울한 상태를 보인다.

어느 때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시달리고 임종하기 20일 전부터는 죽음의 두려움, 즉 검은색의 헛것이 많이 나타나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그들에게 달려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힘이 다 빠진다고 한다. 그런 날의 환자얼굴은 어느 때보다 부석부석 하고 소진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이 보통이다.

죽음이 두려운가? 라는 질문에

‘두렵지는 않다. 다만 죽을 때 남을 괴롭히지 않고 떼쓰지 않고 잠자듯이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의 임종의 괴로움은 의외로 길었지만 그의 신앙 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환자의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걱정 등은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어린 자녀들과 죽음에 대한 염려가 컸다.

### 질병에 대한 내력

1995년 아주대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1998년에 재발하여

- ① 입원 1999. 1. 12 - 1. 13 퇴원
- ② 재입원 1999. 12. 22 - 12. 30 퇴원
- ③ 재입원 2000. 2. 8 - 6. 2 사망

전적인 호스피스 도움을 받으며 편안하게 말기의 삶을 유지하였다.

### 종교

가족들은 4식구 모두 가톨릭이며 환자와 남편이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아이들도 성당에 잘 나가고 있다.

### 이 환자와 접촉을 하면서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점

병실에서의 환자가 보여준 인간 관계를 볼 때는 ‘참 예쁘게 산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러나 환자의 생이 마쳐지고 그 동안 환자와의 만남에서 의미가 있었던 점을 돌아보며 새롭게 발견되는 점은 균형 잡힌 돌봄을 받지 못한 가족관계에 대해서이다. 양가에서 풀어야 할 화해나 갈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나의 생각으로는 사목적인 중재가 없어 환자 스스로는 정면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기 힘들어 풀지 않고 그냥 안고 갔다는 석연치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 II. 환자를 방문하고 나서

이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면서 전형적인 호스피스의 손길을 받은 환자라고 여겨진다. 처음 입원할 당시 환자의 모습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기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원만한 대화를 나누기도 힘이 들었다. 그후 차츰 신체적인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편안한 모습과 얼굴을 지니게 되고 방문자도 적극적으로 맞이해 주었다.

환자는 방문자나 의료진에게나 아무런 불쾌감을 주지 않았고 병실환자가 아파서 종일 소릴 내어도 짜증내지 않고 견디는 무덤 함도 있었다. 오히려 병자가 받는 연민이나 동정보다는 칭찬과 감동으로 대접을 받았다.

환자의 투병생활은 신앙이 큰 버팀목이 되고 있던 중에 꾸준한 방문과 기도는 나날이 격려가 되었으며 환자와의 영적인 교류는 마음에 안정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환자에게 또 다른 도움을 주었던, 내가 아는 범위에서의 활동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본당 봉사자가 쑥 송편 반죽 덩어리를 가지고 와 병실에다 재료를 퍼놓고 병실 보호자들이 달려들어 한창 만들 때 환자도 슬그머니 끼어들어 송편을 만드는데 이때 환자의 늘어진 모습은 다 도망가고 생기 가득 찬 신나고 행복한 얼굴이 만들어졌다. 비록 그날 저녁에 앓아 누웠지만...

또 하나는 간호부 바자회가 열리는 날 아침, 마음은 소녀처럼 들떠 있었다.

그 즈음에서는 기분도 우울했는데 바자회 구경 가는 것이 생기를 주는 원인제공이었다. 저렇게 신날 수가 !!...

이런 것을 볼 때 때로는 어렵지만 호스피스 병동에도 색다른 활동거리를 만들어 환자에게도 일거리나 활동이 주어지면 보호자와 함께 모처럼 만에 잃어버린 웃음을 되살리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도리라 여겨진다.



끝으로 환자를 만나면서 배운 점이 있다.

힘든 투병생활 속에서도 점차적으로 환자의 모습은 밝고 편안했다. 따뜻한 분위기를 잃지 않았고 의사소통이 원만하여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자유로웠다. 이렇게 환자는 죽음에 대한 의미와 의식을 가짐으로써 삶의 질을 극대화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호스피스에서 죽어 가는 과정은 하나의 여행으로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임을, 호스피스 원목자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임을 체험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이다.

이미 고인(故人)이 된 임0옥 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해마라기 연가

내 생애가 한 번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나의 입금이여

폭포처럼 쏟아져 오는 그리움에

목매어

죽을 것만 같은 열병을 앓습니다.

당신 아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내 불치의 병은

사랑

이 가슴 안에서

울음이 뿜은 고운 실로

당신의 비단 옷을 짜겠습니다

빛나는 얼굴 눈부시어

고개 속이면

속으로 타서 익는 까만 꽃씨

당신께 바치는 나의 언어들

이미 하나인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날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의 입금이여

드릴 것은 상처뿐이어서

어둠에 숨기지 않고

섬겨 살기 원합니다.

자 원 봉 사 자

문제점

1.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간다.
2. 병의 진행에 대한 두려움
3. 보호자없는 병원생활의 불편함
4. 경제적인 도우에 대한 부담감
5. 아이들에 대한 아쉬움
6. 마지막 고통과 아름답게 죽고싶은 열망

1.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 간다

6남매의 5번째 딸로 태어난 환자는 어렸을 때의 별명이 순둥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언니 오빠들을 잘 따랐으며 동생 한 잘 돌보는 양보심이 많은 딸이었다고 한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올라와서 조그마한 사무실에 취직이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외로웠던 서울 생활 중 남편을 만난 그녀는 첫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집안 식구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알고 집안망신을 시킨다고 반대했지만 큰딸 귀0의 출산을 알고 나서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

가난으로 시작했던 살림살이는 그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남편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행복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부지런히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남편을 도왔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을 출산하였고 남편은 말이 없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1995년 가슴에 멍울이 생겨서 개인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양성종양이라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서 유방 절제수술을 받고 6개월동안 항암제를 맞았다.

수술결과가 좋다고 했고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동안 자궁에 혹도 생겨서 자궁수술도 2번이나 했고 6개월에 한번 받는 검사도 꾸준히 하지 못했다고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1년 동안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3년만에(1998년) 재발을 한 것이다.

1998년 6개월정도 살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했다.

상황버섯등 생식, 프로폴리스, 솔잎물등 많은 민간요법을 해보았지만 통증만더 심할 뿐 차도가 없는 것 같았다.

1998년 11월 27일 재검 진결과 간, 왼쪽2번째 갈비뼈, 폐, 목 뼈 등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

등뼈에 진통이 생겼고 기침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1999년 1월 12일 성가병원에 입원을 했고 진0를 선생님 만나 뵙고 나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고마웠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다.

1월 13일부터 항암 1차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체중감소와 구토가 시작되었다.(택솔+스테로이드)

2차 항암제를 투여 할 때는 온몸이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많은 감사기도를 드렸다.

고통이 올 때마다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면서 함께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1999년 투병일기를 보면 같은 병실에 외로운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였고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악몽에 시달리고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하느님과 겸손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

하느님을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외롭고 아파했으

며 무서워하였다. 감당할 만큼의 십자가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가끔씩 자신의 약함을 내어 놓으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였다.

호스피스병동에서 만난 그녀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앉아서 졸고 있는 그녀 곁에 다가와서 가만히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유우머 퀴즈를 내서 웃음을 웃게 하면서 그녀와의 인연은 시작된 것 같다. 남편이 생수배달을 하고 있는데 낮에 병원에 보호자가 없어서 같은 성당의 자매님께서 하루종일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간병을 해주고 있었다.

나에게 오전에만 봉사를 해달라는 제의에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던 시기라서 큰 의미를 가지고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도와주시는 자매님께서 아이가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오후까지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해 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돕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 기도했고 수녀님께 말씀을 드렸다.

다행히 하느님께서서는 협조자를 보내주셨다. 말이 없는 조용한 봉사자 두 분이 도와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환자는 며칠동안 우울해 하였고 많이 울었다.

낮설은 이에게 봉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언니처럼 함께 지내던 자매님과 헤어져야 함이 큰 충격이었을 것 같다.

난 부족하지만 열심히 돕겠다고 아무걱정도 하지 말라고 위로해주었다. 그리고 좋은 봉사자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처음 만나는 순간에 그녀는 무척이나 긴장했으며 잠만 자고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웠다.

나에게 “언니, 나 같은 환자 만난 적이 있느냐”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손만 꼭 잡아주었다.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없이 슬프게만 보내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보람있게 보내자고

다독거렸고 그녀는 아기처럼 나의 말에 의지해 왔다.

우린 일주일 후의 일들을 계획했고 함께 하루하루의 시간에 감사했다.

그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고 싶어했다. 마침 부활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부활계란과 카드를 선물하기로 했다. 그녀에게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녀는 하루하루를 즐거워했다. 그림을 그리는 자매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계란 2판을 써서 밤이 늦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완성된 바구니를 탁자 위에 늘어놓고서 자꾸만 선물할 사람이 늘어난다면서 고민하던 그녀와 있음에 이번 부활절은 잊을 수 없는 부활절을 지낼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장 행복한 부활절을 맞고 있다고 자랑도 하였고 성당에서 계란 작품전에 출품도 하였다.

병실에서 봄을 맞이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주말마다 남원(남편의 직장이 그곳이기에)에 다니기 때문에 남원에는 봄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몽우리도 제대로 피지 않은 개나리와 산수유를 꺾어 놓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환자가 기쁘게 봄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다.

병실에 꽃아 두었더니 하루하루 노오랗게 꽃송이가 보일 때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탄성을 올렸고 기뻐했다. 병실에서도 산수유축제를 할 수 있다면서 즐거워했다.

매일 만날 수 없을 때는 전화로 꽃이 몇 송이 피었다면서 알려주었다.

큰일에서 하느님을 찾기보다는 작은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벚꽃, 개나리, 산당화, 진달래꽃, 보리 등 모두가 그녀를 돕고 있었고 그녀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 2. 병의 진행에 대한 두려움

병의 진행에 대한 두려움은 늘 그녀를 긴장시켰다. 옆의 환자를 보면서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다. 예민한 그녀는 진통제가 투여되는 양 까지도 달력에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다.

폐에 물이 차서 힘이 들어 할 때에도 그녀는 병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 했고 점점 진행이 되어 감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으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님 덕분에 그녀는 자기의 컨디션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했고 의사선생님들의 자상한 배려덕분으로 공포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의료 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어떤 진통제 보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 3. 보호자 없는 두려움

보호자 없이 봉사자와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처음에는 낯설고 힘이 들어했지만 계획을 세워서 월요일 오전에서 토요일 오후까지 당번을 정해서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3명의 봉사자와 사별가족 한 분이 끊임없이 열심히 도우면서 사랑을 전하였다.

봉사자들은 매일 매일 따뜻한 밥에 입맛 당기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 나르면서도 지치지 않았고 봉사자들과 환자는 서로 한가족처럼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남편도 저녁을 라면이나 끼니를 거르기가 일수였는데 남편의 아침, 저녁까지도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이들의 반찬까지도 마련해 주어서 환자는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아이들과도 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토요일에는 가족이 교대를 해주었는데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올 수 없게되자 다른 봉사자가 나서서 그녀를 돌보아 주었고 가족을 먼저 보낸 그녀의 아픔을 소상히 이야기 해주면서 위로해주었다.

가족들이 서운하게 하면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든다고 하면서 올 때도 있었지만 그녀가 신경을 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점을 해서 안심을 시켜주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화장실 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는데 그녀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힘이 들어도 변기를 쓰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다녔다.

가끔씩 봉사자들이 올 수 없는 사정이 되었을 때에 나는 겁도 났지만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라서 그런지 배짱 좋게 기도를 하면 언제나 천사를 보내주시곤 해서 환자와 나는 신기하다면서 감사기도를 하곤 했다.

오전, 오후를 그녀는 봉사자와 함께 묵주기도 하는 것을 좋아했고 성 요셉기도와 카타리나 성녀의 9일 기도 등 잠을 자면서도 기도소리에는 성호경을 따라했고 통증이 무척이나 심할 때도 성모송을 따라하던 그녀의 아름다운 기도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남편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퇴근해서 병원에 올 때 까지 또한 남편의 쌓인 많은 고민들을 함께 의논하고 들어주었으며 아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하고 자녀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였다.

## 4.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부담감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늘 조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후원회와 사랑의 병동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마음편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부부가 어쩔줄을 몰라

했다. 혹시라도 너무 오래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도 했고 식대를 내게되면 한 달에 40여만원이나 도움을 받게 된다면서 부담스러워하였다.

살면서 남을 돕지 못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면서 힘이들어 하였다.

우린 모두 하느님 안에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인데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해주었으며 소화테레사 처럼 기도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녀는 도움을 주는 후원회 회원과 수녀님등 봉사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안심을 했다. 마음 편하게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 했고 그녀는 자기를 돕는 많은 분들의 사랑덕분에 매일 매일 새롭게 살아지는듯 하였다.

## 5. 아이들에 대한 아쉬움

초등학교 5학년 영0(아들)은 아주 따뜻하고 자상해서 매일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묻곤 했으며 조그마한 인형이나 선물을 엄마에게 가져와서 우리의 가슴을 몽클하게 하고 했다.

늘 침대 머리맡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를 쳐다보던 영0를 떼어놓고 가는 엄마의 마음은 늘 괴로웠다. 학교가 끝나고 매일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영0가 더욱 허전할 것 같으면서 전화하고 싶어도 참는다고 했다.

귀0(딸)는 고1여고생이다.

엄마가 병이 나서 많이 성격이 달라졌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글플까 하면서 귀0에게 엄마노릇을 대신해달

라고 부탁을 했다.

환자는 딸에게 엄마는 귀0만 믿고 간다고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10년만 아니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도 했고 애원도 했었다. 우린 병원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있지만 아이들은 없는 반찬에 식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왔다.

영0와 귀0가 엄마가 있을 때 보다 많이 여위어서 그녀는 아이들 때문에 늘 가슴아파했다. 사춘기 딸이 방황하고 아빠하고 대립하여 힘이들 때마다 그녀는 어쩔줄을 몰라했다. 성질이 급한 남편은 큰딸을 야단치려 했으나 환자와 나는 타이르고 감싸 주라고 부탁을 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밤늦도록 켜 놓은 TV는 누가 끄고, 창문을 열어 놓은채 잠이 들때 누가 창문을 닫을 것이며 화장실에 불 켜놓고 나왔을 때, 철철이 웃은 누가 챙겨주고 갈비 먹고 싶을 때 엄마없이 얼마나 허전할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잠자다가 문득 깨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시집갈 때, 엄마가 얼마나 보고싶을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녀는 너무도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 모든 아픔을 하느님께 봉헌했고 천사들에게, 성모님께 꼭 도와 달라고 청했다.

## 6. 마지막 고통과 아름답게 죽고 싶은 열망

암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자신의 모습이 변할 때마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외모와 마음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서 큰 걱정을 했다.

옆의 환자들이 혼돈상태가 되어 헛소리를 할 때마다 그녀는 긴장하곤 했다.

혹시라도 쓸데없는 소리로 남에게 상처를 줄까 봐 또한 아이들이 엄마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였다.

예쁘게 임종하고 싶은 것이 그녀의 큰 소원이었다.

시신기증을 해서 강남성모병원에서 시신을 모셔 가게 되면 입관을 할 수 없게되어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고통에 대해서는 성요셉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어느 간호사님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도 우린 모두 환자를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나를 언니처럼 엄마처럼 의지했던 것 같다.

내가 남원으로 떠날 때마다 그녀는 서운해하였고 나에게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 듯하다면서 주말이 지나고 돌아오면 안심이 된다면서 참으로 좋아하였다. 나에게 어떤 힘이 느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아플 때마다 난 나에게 남아있는 힘을 모두 그녀에게 전해달라면서 열심히 기도 하였다.

임종기도랑 사후에 관한 일을 얘기해주었다.

흰 추리닝을 입고 죽겠다는 그녀가 안스러워서 흰색 웨딩드레스를 준비했고 예쁘게 화장을 해서 아이들과 환자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 고통 중에 너무나 힘이 들어 하면서서도 밤이 새도록 그녀 곁에서 봉사자들과 임종기도, 묵주기도를 할 때 가끔씩 눈을 뜨고 웃어가면서 여유있게 고마워했다.

"성요셉이여! 빨리 카타리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소서" 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고통의 순간을 너무도 힘겹게 이겨내는 그녀의 모습에서 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었다. 고통의 절규속에서 그녀는 힘이들어했지만 성요셉은 그녀를 편안히 하느님나라로 데려갔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욱 편안하고 예쁘다는 그녀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녀의 영혼과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나이 35살 아직은 죽음을 맞기에는 너무도 이른 나이인 것 같다.

암 선고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녔지만 열심 하지 못했다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하느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면서 하느님이 너무도 좋은 분인줄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후회를 많이 하였다.

이 엄청난 고통을 성모님처럼 받아 안은 그녀의 순명에 마음이 아프고 존경스러울 뿐이다.

아무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조그마한 일에도 늘 감사하면서 웃어주던 들꽃같은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영정만 모신 채로 장례미사를 드리면서 신부님께서 카타리나를 위해서 특별한 강론까지 준비하여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임종하기 전달 병자성사 주리 오셨을 때 너무도 여유롭고 행복하게 웃어주던 모습을 보고 당신이 너무도 긴장해서 황설수설하셨다면 너무도 죽음을 잘 준비하였고 마지막까지 시신을 기증해준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내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봉사자들과 함께 환자를 도우면서 아픔은 나날수록 작아지고 행복은 나날수록 커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동생처럼 마냥 사랑스럽기만한 카타리나를 보낼 슬픔은 우린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와 하루하루 쌓아놓은 기도와 아름다운 많은 추억들은 우리들 가슴에 아름답게 남아 있다.

5월은 성모님의 달이라서 5월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성모님 달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마지막 소원까지도 다 들어주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과 성모님, 성요셉, 카타리나 성녀,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